2011년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에서 결성된 신스팝 밴드이다.

로렌 메이베리, 마틴 도허티, 이아인 쿡 으로 멤버가 구성되었다.

밴드 전체의 사운드는 신스팝 장르라고 볼수 있으나 인디트로이카, 인디 팝, 일렉트로닉 대스 등의 장르에서 사운드를 차용하고 있다.

이안과 마틴은 대학 때부터 만나 알게 된 친구 사이이다.

로렌과의 만남은 이안이 당시 로렌이 있었던 Blue Sky Archives의 EP 앨범을 프로듀싱하면서 이루어졌는데 로렌의 목소리를 감명깊게 들은 이안이 후에 마틴과 그룹을 만들 때 로렌에게 데모 앨범의 보컬을 부탁하게 된다.

이렇게 밴드가 결성되면서 이름을 'CHVRCHES' 라고 지었는데 U 대신 V 를 쓴것은 고대로마에서 U 대신 V 를 쓴것에서 고안한것이고 검색을 용이하게 하기위한것도 고려하였으며 의미가 대단한것은 없고 단지 멋있어서 라고 한다.

2012년 11월에 데뷔 싱글인 'the Mother We Share' 를 발매하고 2013년 1월에 인디 레이블인 글래스 노트와 계약한다.

글래스 노트에서 2013년 2월 Recover EP 를 발매하고 6월에는 The Mother We Sahre 로 TV쇼에 첫 데뷔를 한다.

이런 과정을 거쳐 2013년 11월에 완성한 앨범이 바로 'The Bones Of What You Believe'. 그들에게 첫 앨범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013 BBC 올해의 음악에 당당히 선정되었으며 평단에게도 나름의 호평을 받는 등 이름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.

2015년에 6월 싱글 'Leave a Trace' 를 시작으로 두번째 앨범 Every Open Eye를 발매하였다.

발매일은 9월 25일. 발매된 싱글들 중 Clearest Blue가 최고의 평을 받고 있다. 팝적인 느낌이 강화된 Leave A Trace도 로렌의 보컬 능력을 보여줬다는 호평을 받았다.

2018년 싱글 'Get Out' 을 시작으로 5월 25일 세번째 앨범 'Love Is Dead'를 발매하였다.

2018년부터는 투어링 멤버로 Jonny Scott 이 드러머로 추가되어 투어를 하고 있다.

음악 성향은 다채로운 신스 멜로디에 로렌의 청량한 음색을 얹어 화려한 편이며 가사는 그와 별개로 대다수가 이별 이야기이고 독기가 넘치는 편이다.